KWC 2019 Australian Wine

호주는 코리아와인챌리지 2019에서 두 번째로 참여율이 높았던 국가이다. 총 114개의 호주 와인이 KWC 2019의 무대에 올랐다. 비록 참여율 1위를 차지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 계단 내려온 수치이지만, 달리 해석하면 지난해부터 호주 와인이 다시 한국 시장의 문을 공격적으로 두드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KWC 2019를 통해 인사를 한 호주 와인들을 지역별로 만나보자.

글 강은영, 조은지 사진 Wikipedia

참여율의 증가

한동안 호주 와인은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이 잠잠했었다. 하지만 최근 2~3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호주 와인들이 활기를 띠고 있음이 느껴진다. 그 바로미터가 KWC. 호주는 최근 KWC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와인생산국이 되었다.

다채로운 지역의 와인

KWC 2019에 출품된 호주 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출신지가 다양했다. 나열해보면 바로사 밸리, 랑혼 크릭, 마가렛 리버, 맥라렌 베일, 쿠나와라, 이든 밸리, 클레어 밸리, 머레이 달링, 헌터 밸리 등이 있다.

섬세한 스타일의 쉬라즈

호주의 대표 와인이라면 여전히 쉬라즈를 꼽는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많은 심사위원들이 호주 쉬라즈에 대해 '기존에 흔히 보이던 진하고 묵직한 스타일이 아니라 섬세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이 많았다'거나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이 많았다'고 평했다는 것이다.

Langhorne Creek

남부 호주에 속하는 와인산지로 아들레이드 시에서 남동향으로 45마일 지점에 입지하고 있다. 랑혼 크릭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 중 하나다. 1860년에 처음 포도나무가 식재됐다. 그러나 한동안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였다가 1970~1980년대 울프 블라스(Wolf Blass), 올란도 윈담(Orlando Wyndham) 등의 집중적인 투자로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포도밭 면적은 총 5,368ha다. 입지가 남대양에 면에 있어 포도가 익어가는 시기에는 알렉산드리나 호수를 거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남풍은 한낮의 더위를 한풀 꺾어주며 약간의 습도를 더해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비는 거의 겨울과 봄 사이에만 내리기 때문에 관개가 보편적이다. 랑혼 크릭에서 가장 잘 재배되는 품종은 쉬라즈와 까베르네 소비뇽이다.

Bleasdale Vineyards 브레스데일 빈야드

브레스데일은 호주 와인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된 와이너리이다. 1850년 프랭크 포츠(Frank Potts)가 설립하였고 현재 6대째 가족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남호주의 브리머 강(Bremer River)이 흐르는 랑혼 크릭에 자리를 잡고 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 비옥한 토양, 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양질의 포도를 길러낸다. 그리곤 '최소한의 와인메이킹 기술로 포도와 토양의 특징을 살려 와인을 양조한다'는 철학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 LB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Bleasdale Vineyards Generations Shiraz

Brothers In Arms 브라더스 인 암스

1998년 가이 아담스(Guy Adams)와 리즈 아담스(Liz Adams)가 랑혼 크릭에 세운 와이너리로, 설립 이래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례로 호주 최고의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할리데이(James Halliday)에게서 수년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첫 빈티지로 생산한 쉬라즈는 5톤에 불과했지만 이제 브라더스 인 암스의 연간 생산량은 700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초기에는 쉬라즈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금은 까베르네 소비뇽도 생산하며, 곧 말벡도 출시 할 계획이다. 이들의 양조 철학은 간단하다. 바로 와인의 균형, 구조, 질감 이 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Brothers In Arms Formby's Run Chardonnay

Metala Vineyards 메탈라 빈야드

메탈라 빈야드는 가이(Guy)와 리즈 아담스(Liz Adams)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브라더스 인 암스 와이너리도 함께 운영한다. 메탈라 빈야드의 대표적인 브랜드 킬리빙빙(Killibinbin)은 호주 원주민어로 '빛이 난다'라는 뜻으로 와인 잔에서 와인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며 이 말을 와인 이름에 붙였다. 킬리빙빙 시리즈는 일곱 가지의 레드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와이너리는 랑혼 크릭을 넘어 해외의 와인 시장에도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Killibinbin Scream

Limestone Coast

남호주에서 질 좋은 와인을 내는 지역으로, 1996년 GI(Geographical Indication: 호주의 와인산지를 구분하는 시스템)로 인증을 받았다. 호주에서 가장 뛰어난 와인이 나는 산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일례로 쿠나와라, 패더웨이 등이 라임스톤 코스트에 포함된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이 지역 토양의 베이스는 라임스톤(석회석)이다. 이 석회석 토양은 배수에 용이하고 영양소가 풍부하여 포도 재배에는 이상적인 여건을 제공한다.

기후는 대체로 해양성 기후를 띤다. 무더운 여름 동안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포도가 오랫동안 천천히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과적으로 농밀한 과일 풍미가 가득한 포도를 얻게 된다. 다양한 포도종이 이 지역에서 재배되지만, 특히 이 지역의 명성을 이끄는 것은 레드 와인이다. 까베르네 소비뇽과 쉬라즈가 특히 유명하며, 좀 더 서늘한 지역에서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비오니에 등과 같은 화이트 품종도 잘 자란다.

Morambro Creek Wines 모람브로 크릭 와인

모람브로 크릭 와인은 아들레이드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패더웨이 밸리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자리 잡은 이들은 비옥한 테라 로사 토양에서 친환경적으로 포도를 재배하여, 낮은 수확량으로 높은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와이너리 소유주인 브라이슨(Bryson) 가족은 1851년부터 일관된 품질과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클래식한 부띠끄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T&E Terroir Inc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Morambro Creek Wines Mt. Monster Cabernet Sauvignon
Morambro Creek Wines Mt. Monster Shiraz

Tidswell 티스웰

티스웰은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1853년 1세대가 호주에 정착한 이후부터 남호주의 주류 및 음료 산업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 5세대인 벤(Ben)과 안드레아 티스웰(Andrea Tidswell)이 와인메이커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석회암층으로 유명한 라임스톤 코스트 지역에 자리 잡고 비교적 선선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 이곳에서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티스웰은 호주 유기농 와인 생산자 협회인 ENT Wine의 인증을 받은 정회원으로 건강한 포도밭을 가꾸는데 집중하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Gold Tidswell Heathfield Cabernet Sauvignon
Tidswell Heathfield Shiraz
Bronze Tidswell Heathfield Vermentino

Glendale Wines 글렌데일 와인즈

글렌데일 와인즈는 호주 라임스톤 코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와인 브랜드이다. 글렌데일이라는 이름은 'Gaelic Gleann Dail'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비옥하고, 곡식을 경작하기 좋은 평평하게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라임스톤 코스트를 잘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글렌데일은 리즈널 레인지(Regional Range)로 라임스톤 코스트에서 난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샤르도네, 그리고 까베르네와 메를로 블렌드를 생산한다. 스페셜 라인으로 쿠나와라 지역에서 난 까베르네와 쉬라즈 블렌딩 와인도 선보이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Bronze Glendale Limestone Coast Shiraz

Clare Valley

클레어 밸리는 이든 밸리와 함께 호주에서 최고의 리슬링이 나는 곳으로 이름나 있는 산지이다. 입지는 남부 호주 내륙 쪽, 북에서 내려오는 롭티 산맥의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아들레이드에서 약 65마일 거리에 있다. 처음 이곳에 포도나무가 식재된 것은 1840년대 초. 그러나 실제 와인 산업의 시작은 1852년으로 간주된다. 산지의 세부지역에는 오번, 클레어힐 리버, 플라쉬 힐 리버, 세븐 힐, 워터베일 등이 있다. 산지 내에서는 표고의 차이로 다양한 기후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알맞은 대륙성 기후로 밤이 서늘한 편이다. 토양은 전형적인 떼라 로사를 비롯해 전판암으로 되어있다. 연 강우량은 630mm로 무더운 여름에는 관개가 필요하다. 재배되는 포도 품종으로는 리슬링, 샤르도네, 세미용, 소비뇽 블랑,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까베르네 프랑, 그르나슈, 메를로, 피노 누아까지 다양하다.

Wakefield Taylors Family Wines
워커필드 테일러스 패밀리 와인즈

1969년 빌 테일러(Bill Taylor)와 그의 아들 빌(Bill)과 존(John)이 함께 클레어 밸리에 설립한 와이너리로, 3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1973년 첫 빈티지인 테일러스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Australian National Wine Show〉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클레어 밸리를 대표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또한 'Australia's First Families of Wine' 협회의 멤버로서 이 협회에 속한 12개의 와이너리들과 함께 고품질의 와인을 선보인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Wakefield Taylors Jaraman Cabernet Sauvignon
Wakefield Taylors The Pioneer Shiraz
Silver Wakefield Taylors Jaraman Shiraz
Wakefield Taylors St Andrews Cabernet Sauvinon

Hunter Valley

뉴 사우스 웨일즈 지방의 대표적 와인산지이다. 헌터 밸리는 2개의 지역 즉 어퍼 헌터 밸리(Upper Hunter Valley)와 로어 헌터 밸리(Lower Hunter Valley)로 나뉜다. 어퍼 헌터 밸리에는 덴먼(Denman), 머스웰브루크(musewelbroke) 등의 산지가 있으며 와인의 생장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아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개발이 되었다. 주로 화이트 와인이 난다. 로어 헌터 밸리는 세스녹(Cessnock) 근처 서쪽 내륙의 브로큰백(Brokenback) 산맥의 발치에 포도밭 대부분이 조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알란데일(Allandale), 벨포드(Bellford), 브룩 포드윗치(Broke Fordwich), 델우드(Dalwood), 포콜빈(Pokolbin), 로스버리(Rosebury) 등 6개의 서브 지역이 있다. 헌터 밸리 와인 생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로어 헌터 밸리는 약 140여 개의 와이너리들이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화이트 와인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샤르도네와 세미용이 우세하다.

McGuigan Wines 맥기건 와인즈

1880년, 오웬 맥기건(Owen Mcguigan)이 헌터 밸리에 땅을 사들이면서 맥기건 와인즈의 역사가 시작된다. 맥기건 와인즈는 1970년대 초 그동안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헌터 밸리 와이너리를 신선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그 결과 호주 자국 내에서는 물론 20개가 넘는 다양한 수출 시장에 맥기건 와인즈의 이름을 알렸다. 1999년 이러한 노력으로 맥기건 와인즈는 헌터 밸리에 이어 바로사 밸리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McGuigan Handmade Shiraz, McGuigan Private Bin Chardonnay
McGuigan Rose

‥ McLaren Vale

맥라렌 베일은 남부 호주의 이름난 와인산지의 하나이다. 아들레이드 시에서 남으로 약 25km 거리의 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1838년 존 레이넬(John Reynell)이 이 지역에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당시 이곳에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 중 한 명이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였다. 훗날 레이넬이 어려웠을 때 하디가 이를 떠맡아 오면서 한 세기에 걸쳐 두 집안이 이 지역의 와인 산업을 이끌어 왔다. 이후 맥라렌 베일은 1900년 초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성장을 보이며 호주의 중요한 와인 산지로 자리매김했다. 주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쉬라즈, 까베르네 소비뇽, 그르나슈, 세미용,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이다. 비오니에, 산지오베제, 진판델, 베르데유 등도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품종이다. 롭티 산맥과 아들레이드 힐의 영향으로 고도에 따라 날씨는 상이한 변화를 보여준다. 연간 강우량은 660mm, 그러나 여름철 강우량이 아주 적어 관개가 필수적이다. 토양은 사토의 진흙, 석회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포도의 생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

Hardys 하디스

호주 와인을 전 세계에 알린 호주의 대표적인 와이너리이다. 설립자이자 와인메이커인 토마스 하디(Thomas Hardy)는 와인 생산 지식과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호주의 와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열정을 쏟았다. 하디스는 2018년 제임스 할리데이가 선정한 지역별 베스트 와이너리(Best Wineries by Region 2018) 중 남호주 분야에서 최고 레벨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영국의 와인 전문지 〈Decanter〉에서 열린 디캔터 월드 와인 어워드를 통해 수차례 수상하며 퀄리티를 인정받았다. **수입사** 인터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Gold Hardys Nottage Hill Chardonnay
Silver Hardys Nottage Hill Shiraz

Haselgrove 하셀글로브

하셀글로브는 1981년부터 남호주의 멕라렌 베일의 중심부에서 와인을 생산하였다. 항상 변함없는 고품질의 와인을 출시하기 위해 생산량에 제한을 두며, 포도밭 관리부터 양조 기술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들로 이미 호주에서는 멕라렌 베일을 대표하는 최고의 와이너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한 로버트 파커로부터 호주의 10대 컬트 와인으로 인정할 만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H By Haselgrove Shiraz
Haselgrove First Cut Cabernet Sauvignon
Haselgrove Staff

Heirloom Vineyards 에어룸 빈야드

와인 메이킹을 공부하던 엘레나(Elena)와 자르 브룩스(Zar Brooks)는 맥라렌 베일을 방문 후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설립한 것이 에어룸 빈야드이다. 자르 브룩스와 엘레나는 훌륭한 와인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7번의 수확을 경험하였으며, 다음 세대로 와이너리를 넘겨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완벽하게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현재는 맥라렌 베일 이외에도 아들레이드 힐스, 바로사 밸리, 쿠나와라 등 호주의 유명 산지에 포도밭을 확장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Heirloom Vineyards A'Lambra Eden Valley Shiraz
Heirloom Vineyards McLaren Vale Shiraz
Silver Heirloom Vineyards Barossa Shiraz
Heirloom Vineyards Coonawarra Cabernet

Sister's Run 시스터스 런

시스터스 런은 가족경영으로 이어져 오는 와이너리로 맥라렌 베일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이며, 색다른 개성이 돋보이는 와인을 양조하고자 한다. 특히 재능 있는 젊은 와인메이커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엘레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와인은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이다. 나는 와인에서 좀 더 자유롭게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스터스 런은 맥라렌 베일뿐 아니라 이든 밸리에도 포도밭을 확장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Sister's Run Old Testament Coonawarra Cabernet
Silver Sister's Run Bethlehem Block Cabernet
Bronze Sister's Run Calvary Hill Barossa Shiraz

Wirra Wirra 위라 위라

1893년 맬라렌 베일에 세워진 와이너리이다. 1969년 번 스패로우(Vern Sparrow)와 그레그 트로트(Greg Trott), 로저 트로트(Roger Trott) 이 세 사람이 와이너리를 재건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이룩했다. 위라 위라는 이곳의 토착어로 '유칼립투스 나무속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와이너리 주변이 온통 유칼립투스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철학은 포도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을 보존하고 한 잔의 와인을 훌륭한 음식, 경이로운 음악, 활기 넘치는 이야기와 함께 즐긴다는 것이다. **수입사** LB

수상와인 리스트
Gold Wirra Wirra Woodhenge
Silver Wirra Wirra Vintage Bell
Bronze Wirra Wirra RSW

‥ South Eastern Australia

호주 남동부를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와인 생산 존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남호주와 퀸즈랜드 일부 등 여러 주가 이 남동호주에 들어간다. 남동호주는 1996년 GI(Geographical Indication)로 인정을 받았다. 이처럼 넓은 개념의 GI가 존재하는 것은 호주 와인의 특성 때문이다. 호주는 블렌딩이 발달한 와인 산지일 뿐 아니라, 여러 주의 포도를 블렌딩해서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남동호주는 워낙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만큼 기후와 토양도 다양하며, 이 GI의 특징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렴한 가격대에서 좋은 와인을 찾고자 할 때 'South Eastern Australia'는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된다. 남동호주 와인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며 인기를 얻고 있는 화이트 품종에는 샤르도네, 세미용, 소비뇽 블랑이 있으며, 레드에는 메를로, 쉬라즈, 까베르네 소비뇽 등이 있다.

19 Crimes 19 크라임스

17세기 영국에서는 절도, 화폐위조, 중혼 등 197가지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호주로 강제 이주시켰다. 당시 강제 이주 형에 처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 만든 와인 브랜드가 바로 19 크라임스이다. 남동호주를 기반으로 만든 와인으로 쉬라즈, 샤르도네, 까베르네 소비뇽 등 호주에서 잘 재배되는 대표적인 품종들을 선보인다. 와인 레이블에 있는 인물들은 허구가 아닌 실제 범죄자이다.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에서 리빙 와인 레이블(Living Wine Lables) 어플을 다운 받아 레이블을 스캔하면 그들의 생생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19 Crimes Hard Chardonnay, 19 Crimes Shiraz

Murray Darling

머레이 리버 그리고 머레이 리버와 합류하는 달링 리버를 포괄하는 지역을 이른다. 즉, 빅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 걸쳐있는 방대한 지역으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와인 산지로 분류된다. 이곳에 처음 포도나무가 식재된 것은 1888년이었다. 이전에는 거의 사막과도 같았다. 하지만 1800년대 후반 관개가 도입되면서 차츰 포도밭이 생기기 시작한다. 초기 이 지역의 포도는 벌크로 대량 생산되는 와인에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소규모 부띠끄 와인생산자들이 이 지역에 터전을 잡으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후는 전체적으로 무더우며, 일조량이 높다. 습도는 낮고, 포도가 자라는 시기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아 관개는 필수적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다. 좋은 퀄리티에 비해 가격대는 저렴한 편이다. 레드는 쉬라즈와 까베르네 소비뇽이 주요하게 재배된다.

Barossa Valley

남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특히 쉬라즈로는 호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명산지로 꼽힌다. 1840년경, 요하네스 멍게(Johannes Menge)가 이곳의 탐사를 마치고 바로사 일대를 포도밭과 과수원으로 개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바로사 밸리는 토양과 자연환경이 포도의 재배에 아주 적합해 오래지 않아 와인 명산지로 떠오르며, 수많은 와이너리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그리고 100년 이상의 오래된 포도나무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 이곳은 날씨는 매우 더우며 강우량은 연간 500mm로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일조량이 넉넉해 포도의 성장에 매우 유익하다. 토양은 갈색과 짙은 회색의 사토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레드 와인이 우세한 지역으로 바로사의 포도밭 절반은 쉬라즈로 덮여 있다. 그 외 리슬링, 까베르네 소비뇽, 세미용, 샤르도네가 많이 재배된다.

Andrew Peace 앤드류 피스

앤드류 피스 와인은 3,000 에이커에 달하는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22개의 다른 포도 품종을 재배한다. 와이너리는 빅토리아 주의 북서쪽(North West Victoria)의 머레이 강(Murray River) 유역에 자리 잡고 있다. 유리한 입지 조건, 혁신적인 기술 도입, 다양한 품종 개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를 위한 노력 등은 앤드류 피스가 짧은 기간 내에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Andrew Peace Koala Ranch Shiraz

3 RINGS 3 링스

3링스가 설립된 것은 2004년. 오너 일가인 히킨보덤(Hickinbotham) 가문은 와이너리 설립 80여 년 전부터 호주 와인 업계에 발을 들였다. 일례로 현 오너의 할아버지인 알렌 롭 히킨보덤(Alan Robb Hickinbotham)은 1936년 남호주 지역의 로스워시(Roseworthy) 농업학교의 와인 양조과정을 설립한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한편 로버트 파커로부터 100점 만점을 수차례 받은 유명 와인메이커 크리스 랭랜드가 이들의 양조 컨설팅을 맡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의 바로사 밸리 쉬라즈는 첫 빈티지부터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Bronze 3rings Shiraz

Dandelion Vineyards 단델리온 빈야즈

바로사 밸리에 자리한 단델리온 빈야즈는 가족 소유의 포도밭에서 질 좋은 포도를 기르고, 고유한 캐릭터를 담은 와인을 만들고자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오래된 포도밭과 젊은 와인메이커의 조합'이라고 소개하는데 2014년 제임스 할리데이 호주 와인 컴피티션에서 5개의 별을 받아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맥라렌 베일, 이든 밸리, 아들레이드 힐스 지역까지 포도밭을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Dandelion Vineyards Lionheart of the Barossa Shiraz
Dandelion Vineyards Pride of the Fleurieu Cabernet
Dandelion Vineyards Red Queen of the Eden Valley Shiraz

Gibson Wines 깁슨 와인즈

20여 년간 호주의 국보급 와이너리인 펜폴즈에서 와인메이커로 경험을 쌓은 롭 깁슨(Rob Gibson)이 바로사 밸리에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깁슨 와인즈는 초기부터 제임스 할리데이로부터 5개의 별을 받으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현재는 바로사 밸리 외에도 이든 밸리, 아들레이드 힐스에 포도밭을 확장하고 총 8개 레인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든 밸리 리슬링은 신선하고 우아한 맛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Gibson Wines Reserve Shiraz, Gibson Wines The Smithy Shiraz Cabernet
Bronze Gibson Wines The Dirtman Shiraz

Grant Burge 그랜트 버지

버지 일가의 1세대인 존 버지와 가족들은 1855년부터 와인을 생산해왔다. 이후 1988년 5대손 그랜트 버지가 그의 이름으로 와이너리를 설립한다. 바로사 밸리에 있는 그랜트 버지의 포도밭의 경우 수령이 50년 이상인 포도나무가 20%, 30~40년 수령이 40% 정도 된다. 125년 이상의 고목이 식재된 포도밭도 소유하고 있다.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기로 이름난 이들은 제임스 할리데이의 와인 컴페니언에 11년 연속 5스타 와이너리로 꼽힌 바 있다. **수입사** 에노테카코리아

수상와인 리스트
Gold Grant Burge 5th Generation Barossa Chardonnay
Grant Burge Corryton Park Cabernet Sauvignon
Bronze Grant Burge Benchmark Shiraz

Kalleske Wines 칼레스케 와인

1858년 프로이센 공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칼레스케 가문은 바로사 밸리, 모파, 그리녹 지역에서 최고의 포도를 재배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들은 펜폴즈 와이너리에 포도를 납품하기도 하고 와인 양조를 병행했다. 현재는 6~7대손들이 와이너리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모든 포도밭을 유기농으로 관리한다. 현재 와인 메이킹을 담당하고 있는 트로이 칼레스케(Troy Kalleske)는 아들레이드 대학에서 양조학을 공부한 후 펜폴즈, 베리타스, 랜드만, 캔달 잭슨 등에서 경험을 쌓은 실력자이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Kalleske Moppa Shiraz Bronze Kalleske Greenock Shiraz

Schild Estate 쉴드 에스테이트

벤(Ben)과 알마 쉴드(Alma Schild)는 1952년 바로사로 이주해, 스테인가르텐 로드(Steingarten Road) 위쪽에 있는 포도밭을 매입했다. 4년 뒤 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6살 어린 나이의 아들 에드가 가산을 맡아야 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쉴드 에스테이트는 바로사 밸리에서 가장 넓은 포도밭을 소유한 가족경영 와이너리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450에이커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수령이 170년 된 오래된 쉬라즈 포도나무도 있다. 바로 이 나무로 아이콘 와인 무루루(Moorooroo) 쉬라즈 와인을 빚는다. **수입사** WS통상

수상와인 리스트
Gold Schild Estate Barossa Valley Chardonnay
Silver Schild Estate Barossa Valley Shiraz

Thorn-Clarke 쏜 클락

쏜 클락은 샘 클라크(Sam Clarke)가 운영하는 가족경영 와이너리이다. 1854년 그의 부모인 데이비드(David)와 체릴 클라크(Cheryl Clarke), 그리고 체릴 클라크의 선조인 쏜(Thorn) 가문이 세운 곳이다. 즉, 바로사 지역에서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던 두 가문이 만나 '쏜 클락'이라는 와이너리가 탄생했다. 쏜 클락은 가장 오래된 쉬라즈 포도밭을 소유하며 '바로사 밸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와인을 만들자'라는 신념으로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수상와인 리스트
Gold Thorn-Clarke Terra Barossa Sandpiper Shiraz
Silver Thorn-Clarke Shotfire Shiraz

Zonte's Footstep 존테스 풋스텝

와인에 대한 열정, 양조 기술, 위대한 와인을 생산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모여 존테스 풋스텝을 설립했다. 이들은 바로사 밸리, 맥라렌 베일, 랑혼 크릭, 아들리에드 힐 및 기타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유명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호주 와인의 변화를 체험한 이들은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등 다양한 레인지의 와인을 생산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와인들을 세프의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당과 와인바도 운영하며 모자, 티셔츠 등의 기념품도 판매한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Zonte's Footstep Baron Von Nemesis
Zonte's Footstep Blackberry Patch
Zonte's Footstep Chocolate Factory
Bronze Zonte's Footstep Lake Doctor
Zonte's Footstep Love Symbol

Margaret River

서부 호주의 수도인 퍼스(Perth)에서 272km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지역으로 겨울에는 온난하며 습도가 높고 여름은 덥고 건조한 편이다. 토양은 융기현상의 영향으로 화강석이 퇴화하면서 조성된 철분과 자갈이 많은 양토로 되어있다. 1967년 이 지역에 포도나무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톰 컬러티(Tom Culity)가 바스 펠릭스(Vass Felix)에 와이너리를 오픈하고 1969년 빌 패널(Bill Pannell)이 모스 우드(Moss Wood)를 설립하면서 외부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마가렛 리버는 호주의 전체 생산량에 3~4% 정도에 불과하지만 질 높은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메를로, 샤르도네, 세미용, 소비뇽 블랑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 중 까베르네 소비뇽은 호주 내에서도 수작으로 친다. 마가렛 리버 산지는 완만한 언덕들, 수려한 해안, 서쪽으로 흐르는 강들, 숲에 둘러싸인 포도밭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빚어 관광 휴양지로도 이름나 있다.

Ashbrook Estate 애쉬브룩 에스테이트

애쉬브룩 에스테이트는 3대째 데빗(Devitt) 가문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1975년 마가렛 리버의 심장부에 포도밭을 사들였다. 40여 년 동안 이 지역에서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애쉬브룩 에스테이트는 포도밭의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와인 평론가 제임스 할리데이로부터 5개의 별을 받으며 호주의 톱 와이너리로 알려졌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Ashbrook Estate Cabernet Sauvignon

Miles from Nowhere 마일즈 프롬 노웨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가렛 리버에 위치한 와이너리이다. 프랭클린(Franklin)과 헤더 테이트(Heather Tate)에 의해 재탄생했다. 이들은 젊고 재능 있는 와인메이커 로리 클리프톤-파크(Rory Clifton-Parks)와 함께 좋은 품질의 특별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iles from Nowhere'에는 여유를 가지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Miles from Nowhere Best Blocks Chardonnay
Silver Miles from Nowhere Best Blocks Cabernet Sauvignon

Coonawarra

쿠나와라는 호주에서 최고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라임스톤 코스트 권역에 속해 있는 산지로 남호주의 최동남단, 빅토리아 주 경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 처음으로 포도나무가 식재된 것은 1891년,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한 존 리도크(John Riddoch)에 의해서였다. 이외에도 데이비드 윈(David Wynn), 빌 레드만(Bill Redman) 등 초기의 선구자들이 있었다. 입지는 약간 내륙 쪽이나 바다와의 거리가 60km에 불과해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름은 비교적 건조하고 적당히 선선한 편이다. 쿠나와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테라 로사(terra rossa)'라고 불리는 붉은 토양이다. 이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한편 적절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마련한다.

Penley Estate 펜리 이스테이트

펜리라는 이름에는 호주의 명망 높은 두 와인 가문의 이름이 교차한다. 펜폴즈(Penfolds)의 첫 세 글자와 톨리(Tolley)의 마지막 세 글자다. 즉 펜리는 호주 와인 업계에서 유명한 두 가문의 러브스토리로 시작된 와이너리다. 쿠나와라 지역에 포도밭을 매입한 이들은 까베르네 소비뇽을 심고, 1995년에는 와이너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틀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펜리의 명성도 쑥쑥 커나갔다. 포도밭도 넓히고, 쉬라즈도 심고, 와인 레인지도 좀 더 다양하게 확장시켰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와인 리스트
Best Australia Red Penley Estate Scottsburn Cabernet-Shiraz
Gold Penley Estate Chertsey Blend, Penley Estate Gryphon Blend
Silver Penley Estate Hyland Shiraz **Bronze** Penley Estate Atlas Shiraz

Redman 레드맨

호주에 정착한 윌리엄 레드맨은 1901년 쿠나와라에 이주해 존 리도크(현재의 윈스 와이너리)에 일자리를 구했다. 이후 그의 와인에 대한 열정은 아들 오웬과 며느리 에드나 레드맨를 통해 이어진다. 1966년 이들이 레드맨이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레드맨은 쿠나와라에 34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밭의 포도나무의 수령은 20~100년 정도 된 것들이다. 이런 질 좋은 포도를 이용해 레드맨은 오직 프리미엄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Redman Cabernet Sauvignon

Eden Valley

이든 밸리는 바로사 권역에 속해 있다. 총 포도밭 면적은 1,875ha. 호주에서 비교적 서늘한 기후 지대에 꼽힌다. 그래서 이 지역의 와인은 섬세하고 아로마틱하며 우아하다는 평을 듣는다. 와인 생산의 역사는 18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쉬라즈와 리슬링 포도밭을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언덕이 발달한 이든 밸리에서는 해발고도와 경사면에 따라 기후가 미세하게 차이난다. 고도가 500m에 이르는 퓨시 베일(Pewsey Vale), 헤기스(Heggies), 하이 이든 밸리의 포도밭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서늘하다. 전체적으로 이든 밸리는 포도가 익는 시기, 바로사 밸리에 비교해 기온이 두드러지게 낮은 편. 결과적으로 호주 화이트 와인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며, 특히 수준 높은 리슬링을 생산하기로 유명하다. 레드 와인으로는 쉬라즈가 가장 중요하다.

Gatt Wines 가트 와인

1972년 이든 밸리의 중심 지역인 하이 이든과 바로사 밸리의 심장부에 세워진 이든 스프링스(Eden Springs)는 2006년 레이 가트(Ray Gatt)가 와이너리를 인수하면서 가트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레이 가트는 2007년에 하이 이든에 새로운 와이너리를 건축하고 최고의 팀을 구성하여 포도의 재배부터 와인의 양조까지 혁신을 일으키며 호주의 프리미엄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포도밭은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관리한다. 국내에서는 KWC에서 연속으로 트로피를 수상하며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수입사** 까브드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Gatt Eden Springs High Eden Riesling
Silver Gatt Accent Shiraz